

Field Voice >>>

“스마트그리드에 대한 기대와 걱정”

전력산업의 미래 먹거리로 부상된 Smart Grid에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올해부터 실증단지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본궤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으나 아직은 갈 길이 먼 것 같다. 2030년까지의 장기 계획이다 보니 관련 업계에서도 처음의 계획이 변하지 않고 일관되게 이어나갈 수 있을 지에 대한 걱정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높다.

정부 역시 이런 점을 감안, 매년 상황 변동에 따라 그때그때 바꿀 것은 바꾸고 보완한다는 방침임을 천명하고 있다. 스마트 그리드 사업에 있어 민간업계의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 민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속될 경우, 스마트 그리드사업은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확실한 먹거리 우선순위에 등극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전기요금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야 하는데”

전기요금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이 시작됐다. 올해부터 전기요금 원가연동제 모의시행이 바로 그것이다. 오래 전부터 그 필요성이 제기됐던 문제가 이제야 ‘말 그대로 제대로 뭔가 하는’ 분위기다. 아쉬운 점은 일반 국민들의 생각이다. 전기요금 연동제를 무작정 요금 인상으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싸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이 조정되면 마치 큰 문제라도 생긴 것처럼 과민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매 달 수 십만원에 달하는 통신요금에 대해서는 별 다른 저항이 없으면서 유독 전기요금에 대해서만은 불만을 보인다. 전기요금에 대한 일반의 인식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한 대목이다.

“원전강국의 새로운 출발이 시작됐다”

원자력이 미래의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수출산업으로 떠올랐다. 지난 연말 UAE 원전수출을 성사시킴으로써 우리나라 원전산업의 숙원이 마침내 이뤄진 것이다. 원자력은 세계적으로도 친환경 에너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분위기다. 지금까지 원전에 대해 소홀했던 나라들도 이제는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말 그대로 우리에게는 호기인 셈이다. 특히 우리는 다른 나라가 원전산업을 중단하거나 소홀히 했던 것과는 달리 꾸준히 원전산업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경제성, 운영능력 등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에 올랐지만 우리가 갖춰야 할 부분도 많다. 원천기술, 인력, 원료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사람을 키우고,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원료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이 지금까지와는 달리 좀 더 움직여 나가야 한다. 앞으로가 더욱 중요하다. 원전의 중요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진정한 원전강국을 향해 새로써야 할 50년 반세기의 역사가 다시금 시작됐다.

“녹색성장은 녹색생활에서부터”

‘녹색성장’이 시대의 화두가 됐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녹색성장을 추진해야 한다는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이에 따라 사회 각 분야가 모두 녹색성장의 기치를 들고 있다. 어떤 정부부처에서는 보고서의 색깔도 녹색으로 한다는 얘기까지 들린다. 그야말로 녹색바람이 불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천이 아니겠는가. 특히 녹색성장이 일반의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도록 하는 환경조성이 중요해 보인다. 녹색생활이 이뤄지지 않고는 녹색성장은 실현 될 수 없다. 국민 모두가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중요성과 소중함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고 이를 실천해야 하는 시점이다.